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5487.24	↑ 코스닥	1152.96
	(-96.01)		(+4.56)
↑ 금리 (미국 3년)	3.338	↑ 환율 (원/달러)	1497.50
	(+0.067)		(+16.30)

metro 경제



어닝쇼크 수두룩... 1분기 전망도 부진

상장사 4분기 실적시즌 10곳 중 6곳 실적 기대이하 반도체 대형주 선전 두드러져 대원제약·금호석유화학 등 어닝쇼크 수준으로 부진

지난해 4분기 실적시즌이 절반 가량 진행된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10곳 중 6곳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1분기 실적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증권사 3곳 이상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제시한 246개사 중 158개사(64%)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컨센서스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은 88개사(36%)에 불과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대형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737억원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8% 웃돌았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19조



중동 교민들, 군 수송기 타고 대피

14일(현지시간) 중동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이 '사막의 빛' 작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KC-330)에 탑승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국방부

1696억원으로 컨센서스보다 16% 많았다.

다만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면 '어닝쇼크'에 가까운 부진도 적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컨센서스(483억원)를 97% 밑돌며 두 번째로 하회 폭이 컸다. 연말 시장 수요 둔화 및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합성고무 부문 수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포스코홀딩스(-96%), 한화시스템(-85%), 씨앤씨인터내셔널(-82%), 현대무백스(-79%) 순으로 하회 폭이 컸다.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현대차(1조6954억원)와 기아(1조8425억원)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37%, 1% 하회했

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적자는 4549억원으로 기존 예상(영업적자 615억원)보다 적자폭이 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 두산에너빌리티(-32.0%), HD현대중공업(-22%) 등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파견 요구 아덴만 '청해부대' 투입 가능성

한·중·일·영·프랑스 압박 국회 동의 필요한 상황 정치적 이슈 부상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중국 등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 하라고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새로운 국내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정부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15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조만간 공식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몽둥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과 달리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이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코스피 발빠는 외국인... 원화값 하락 '비상'

중동사태와 경제리스크 ② 치솟는 환율

불확실성 커져 안전자산 선호 환율 55원 상승한 1479.80원 금 한돈에 107만원대 최고수준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줄이고 달러로 자금을 옮기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47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2월 27일) 1424.50원에서 이달 13일 1479.80원으로 55원 올랐다.



◆ 달러·금 선호...원화값 하락 압력

원·달러 환율이 오른 이유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DXY)는 13일 기준 100.36을 기록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주요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

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얼마나 강세, 약세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달러가 강세라는 뜻이다.

금 가격도 올랐다. 3월 중순 기준 국내 금값은 3.75g(1돈)당 살 때 107만원대를 상회하는 최고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

중동 전쟁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기준 전일 대비 1.72%(96.01포인트) 하락한 5487.24에 마감했다. 이는 중동 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월 27일 6244.13과 비교하면 756.89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3·15의거 기념식' 참석해 첫 정부 공식 사과... "희생자 유가족에 진심 사과"
- ▲'서울시장 출마' 정원오 교통공약 발표... "버스 노선망 재편·30분 통근도시 만들 것" /사진 뉴시스

- ▲윤상현 "국민의힘, 선수 탓하기 전에 운동장부터 바로 세워야"
- ▲국힘 "北 600mm 방사포 도발...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과"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에 김정철·부산 정이한 등 6명 공천
- ▲조국 "정부·여당, 檢 보완수사권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야"